

순천, 가족친화·공공의료·복지정책 본격화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순천’ 인프라 조성 박차 공공의료체계 구축도 속도…도시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이 인구 오퍼스(onus, 부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인구 오퍼스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가의 경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더해 출생률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대한민국 전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전남 동부권 또한 2024년 여수·순천·광양(여순광)의 인구 7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현실화된 인구절벽에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소멸 대응을 위

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전남지역 첫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회귀로 좌초됐다. 노인·장애인 비용과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1위에 달하는 전남모로서는 정부의 의지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는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아동, 고령자 등 모두가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와 의료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

혔다. 순천시는 2016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이후 2022년 2단계 사업 도시로 재지정됐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여성 취·창업 지원서비스 △여성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안심홈세트 지원 △여성 안심택배보관함 △도심공원 공중화장실 안전모니터링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 △양성평등마을 공모사업 등 성평등, 안전과 일자리, 돌봄이 어우러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중에는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시 자체 사업인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갈 계획이다. 또 아동

참여위원회 등 아동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아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해 아동권과 권리의식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는 2022년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최초 가입한 데 이어, 2025년 재인증을 받아 2029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의료공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순천시는 자체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여성, 아동, 노인 등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지역의료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시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 유관기관 합동 도상훈련…실전 대응 능력 향상



광양시는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시는 2023년 전남 최초로 보건소 주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3년째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광양시 보건소장이 이하 신속대응반 40명과 광양소방서 소속 3명이 참여했으며, 성가를 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DMAT), 국립중앙의료원 전남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순천소방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이 강사진으로 나섰다.

오전에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이론 교육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전 도상훈련이 이어졌다. 특히 도상훈련은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재난 상황에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광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재난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요청에 따라 출동해 소방서 및 권역응급의료센터(DMAT)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상자 분류, 응급처치, 병원이송, 자원관리, 언론 브리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이해공모전’ 개최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제45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주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5년 장애이해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진행되며,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동시, 슬로건 등 세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는 구례 지역 7개 초·중·고교에서 총 228점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들은 구례군미술협회, 구례문화원 등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구례군장애인복지관장상 16점과 특별상 8점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특별상은 구례군청,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경찰서, 구례소방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국립공립공단 지리산전남사무소,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 구례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8개 기관이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2025 장애이해공모전’ 시상식은 학생들의 따뜻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더욱 빛났다. 수상 학생들의 가족도 함께 참석해 감동을 나누는 축하의 장이 됐다.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송태영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관 및 축제와 연계해 전시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장애이해 교육의 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내달 4~6일 개최

조상현 판소리 명창 특별 공연·판소리 경연 체험이 함께하는 전통 소리 축제 등 ‘풍성’

보성군은 대한민국 대표 소리 축제인 ‘제27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보성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 전통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통해 신진 인재를 발굴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전통 판소리를 중심으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국악 명인들의 특별 공연 ▲명창 추모

제 등 전통의 맛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통 악기 만들기 체험 ▲주막집 판매행사 ▲미술 배우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판소리 명창 조상현 국창의 특별 공연이 예정돼 있어, 전통 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는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5월 4일에는 축제의 서막을 여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이 열리며, 판소리와 고수 부문으로 나

누어, 명창·명고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 다양한 부문의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5일에는 경연대회 본선과 함께 ▲장년(노년)부 경연 ▲명인·명창 고수 열전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축하공연 ▲보성군립국악단 특별공연 등이 이어지며, 시상식도 진행된다.

6일은 보성판소리성지에서 명창 추모제가 열린다. 보성 소리의 맥을 잇는 명창들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판소리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소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국악을 즐기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제2차 현장 소통의 날’ 운영

현장 3개소 방문…사업 진행 상황 점검·개선 방안 모색



정인화 광양시장이 시민운동길 보행로 연결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양시는 제2차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월 운영되는 이 행사는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운동길 보행로 연결사업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농업기술센

터 시험포장 연결도로 검토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시민운동길 보행로 연결사업’ 현장은 마동 1293번지와 1774번지를 잇는 길이 82m, 폭 2.5m 규모의 경관 보도교 조성 사업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의 연속성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정 시장은 메타세쿼이아 전정과 생육 불량 수목 정비를 지시하며, (가칭)중급대교 구간의 단절된 시민운

동길도 보도교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현장으로, 2023년 전남도 공모에 선정된 후 골목길 경관 개선과 어울림 플랫폼(카페)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연결도로 검토 현장을 방문한 정 시장은 시설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절감과 추진이 용이한 구간 검토를 지시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의 날을 통해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광양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순천, 5월 가정의 달 맞아 순천사랑상품권, 10% 할인

순천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사랑상품권은 관내 식당, 마트, 시장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은 총 13,800개소다. 가맹점 목록은 ‘지역상품권 chak’ 앱 및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은행, 순천농협, 축협, 원협, 낙협 등 5개 은행 47개 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모바일형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모바일형을 합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며 지류는 최대 3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1~2월 두 달간 15% 특별할인을 실시한 바 있다.

곡성 ‘아트벤처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최종 선정

총 91팀 100명 접수…수상자 11명, 내달 1일 시상식

곡성군은 ‘2025. 곡성군 아트벤처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자 11명을 최종 선정해, 오는 5월 1일 군청 대동마루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곡성을 도심 주요 동선에 예술을 담은 특색있는 벤치를 설치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공

모전에는 총 91팀 100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공모전은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곡성군을 예술로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출한 ‘홍옥’씨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은 수상작 디자인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실제 벤치를 제작해 최

적의 장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욱 활기차고 매력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분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상 작품들은 곡성군을 더욱 빛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예술적 공간을 일상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곡성=홍경백 기자

곡성,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추진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4년도에 공장등록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

2025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환경관련법 등을 위반하여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인 기업, 타 기관의 물류비 관련 보조금 중복수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4년도에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관내 지역에서 광의 지역으로 판매와 출하를 하는데 발생한 물류비용을 기업당 50% 범위 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 ‘관광약자 이동차량’ 서비스 연중 운영

‘아이는 신나고, 부모는 힐링하는 특별한 순천 여행 추천’

순천시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관광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순천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 이동차량’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광약자 이동차량’은 아이와 함께가는 여행이 망설여졌던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어, 아이는 놀이에 집중하고 부모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맞춤형 서비스다.

순천의 대표적인 가족 여행 명소로는 아이를 위한 테마 공간이 가득한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다. 어린이 동물원과 시크릿어드벤처 등 어린이를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봄꽃이 만개한 정원에서는 온 가족

이 자연 속 힐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낙안읍성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전통 가옥, 민속 음식, 문화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교육적이고 감성적인 여행지로, 아이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하다.

이 외에도 순천 드라마촬영장, 시립그림책도서관, 철도관사마을 등 순천 곳곳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풍성하다.

‘순천여행 관광약자 이동차량’은 휠체어석 1인, 일반석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하며, 코스는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3시간에 6천 원, 5시간에 1만 원, 8시간에 1만 5천 원이다. 순천시 바로예약 누리집 또는 전화(070-4162-9887)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최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 호소문 발표

구례군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구례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 폐지 반대 건의안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장길선 의장은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장길선 구례군의장은 호소문을 통해 구례군민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며, 이번 서명운동이 군민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 사회단체 및 자생 주민단체들의 협력을 촉구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서명운동을 비롯해 지속적인 대안 모색과 관계기관 설득을 통해 서시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례=오광범 기자